



주간 테러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8. 30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스위스, 테러 위험이 높아졌다고 경고

- 8.22 스위스 연방 정보국 국장 「크리스티안 두세이」는 러시아·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이슬람 국가의 선전·선동 등으로 인해 스위스 내 테러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

※ 同人은 매년 스위스 정보국과 외국 정보기관 間 매년 약 2만 건의 정보가 교환되고 있으며,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해서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할 것을 촉구

○ 프랑스, 범죄 악용 방치 혐의로 텔레그램 대표 체포

- 8.25 언론은 프랑스 경찰이 텔레그램 CEO인 「파벨 두로프」를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관한 혐의로 체포했다며, 同人을 테러조장 등의 조정대리자로 간주해 영장을 발부했다 보도

※ 텔레그램은 최근 극단주의 콘텐츠, 가짜뉴스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'21년 1월 美의회 난입 사태와 영국 극우 폭력 시위 참가자들도 텔레그램으로 조직한 것으로 지목됐다 부언

○ 그리스, 反유대주의 테러 대비를 위해 보안 강화

- 8.27 외신은 그리스가 이슬람 극단주의를 추종하는 테러범 유입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, 이스라엘 대사관·유대교 회당·관광지 등에 대한 경계 태세도 한층 높이고 있다고 보도

※ 최근 독일·프랑스 등 유럽에서 反유대주의 테러 사건이 증가하여 보안강화 조치 시행

미 주

○ 아르헨티나, '유대인 테러 모의'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검거

- 8.22 언론은 아르헨티나 경찰이 칠레와 접경지역인 멘도사 도시에서 유대인·反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테러를 모의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원 7명을 검거했다고 보도
- ※ 同 조직원은 경찰 수사망을 피해 칠레로 도주하려다 국경과 공항 등지에서 붙잡혔으며, 총기와 하드디스크 등을 증거로 압수

중 동

○ 알제리, 자금세탁 및 테러 방지를 위한 규정 발표

- 8.27 외신은 알제리 금융기관이 테러 자금 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 新규정으로 미검증된 계좌의 거래 금지와 의심스러운 전산 이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보도

아 · 태평양

○ 파키스탄, 총격 테러로 버스 승객 32명 사망

- 8.26 언론은 파키스탄 발루치스탄州 무사카일 지역 고속도로에서 무장괴한의 총격 테러로 버스 승객 3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하였으며, 「아시프 알리 자르다리」 대통령은 신속한 범인 검거를 촉구
- ※ 외신은 발루치스탄州 칼라트 지역에서도 같은 날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무장괴한들이 경찰관과 행인 등 9명을 사살했다고 부언

○ 중국, '국제 테러방지 포럼' 베이징에서 개최

- 8.27 외신은 중국이 50개국이 참여하는 「'24년 테러 방지 국제포럼」을 베이징에서 개최하였으며, 오는 30일까지 '무인 테러 방지 작전'을 주제로 장비·훈련·인재 양성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보도
- ※ '16년에 시작된 이 포럼은 현재 5회째를 맞이했으며, 전 세계적으로 테러리즘에 맞서기 위해 협력을 촉진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부언

아프리카

- 부르키나파소, 무장단체 공격으로 약 340여 명 사상자 발생
 - 8.26 언론은 부르키나파소 중부 바르살로고 마을에서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주민 약 200여 명이 사망하고 최소 140명이 다쳤으며 이번 공격의 배후로 알카에다와 연계된 JNIM^{*}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
 - 이슬람과 무슬림 지지그룹
 - * JNIM(Jama'at Nusrat al-Islam wal-Muslimin)은 서아프리카 사헬지역에 이슬람국가를 건설을 목표로 하는 무장단체로 현재 UN('18), 미국('18), 영국('19)에서 테러단체로 지정

역사 속 테러사건

Weekly Terrorism Trends

필리핀 남부 축제현장 폭탄테러 사건

- '18. 8. 29, 20:35경 필리핀 남부 술탄쿠다라트州 이슬란市 소재 주유소 인근에서 사제폭발물이 폭발하여 1명이 사망하고, 36명이 부상
 - 당시 '도시 수립 61주년 기념 축제'로 인해 현장에는 사람들이 밀집해 있었으며, 군용트럭이 지나가는 순간 폭발물이 폭발
 - 사건 직후 필리핀 軍은 현장주변 수색을 통해 추가 폭발물 2개를 발견하였으며, 추가적인 인명피해 없이 안전하게 처리
 - 軍·警은 “한 남성이 이상한 가방을 놓고 갔다”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였으나 검거 실패
 - 필리핀 정부는 同 사건이 軍을 겨냥한 테러로 추정하였으며, ISIS 추종 세력인 「방사모로 이슬람 자유전사(BIFF)」를 배후로 지목
- ⇒ 최근 해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, 국내 이슬람 커뮤니티 관련 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 강화
- * 국내 체류 이슬람권(57개국) 인구수는 301,371명(7.31 기준, 법무부)



<사건 현장>

테러 상식

Weekly Terrorism Trends

< 방사모로 이슬람 자유전사(BIFF) >

- (개 요) Bangsamoro Islamic Freedom Fighters, '방사'는 국가·민족, '모로'는 무슬림을 의미
- (목 표)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에 이슬람 독립국가 건설
- (연계세력) 제마이슬라미야(JI), 아부사야프그룹(ASG), ISIS-西아시아지부
- (활동지역)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중부 마윈다나오·코타바토州를 중심으로 활동
- (주요활동) ① '14.8 ISIS에 대한 지지 및 연대 선언 성명서 발표
 ② '15.1 마윈다나오州에서 '02년 印尼 발리 폭탄테러 배후 인물을 추적하던 경찰특공대를 매복 공격하여 44명 사망, 100여 명 부상
 ③ '22.11 민다나오 술탄 구자라트州에서 버스 대상 폭탄테러로 1명 사망, 11명 부상

